

광주시 ‘군공항 이전 자문위’ 반쪽 운영 ‘실효’

失効

개발계획 수립 위해 2018년 출범 전남도 몫 30% 불구 위촉 ‘전무’ 이전지 지원 등 논의 제역할 못해 市 “이전 후보지 선정시 위원 선임”

광주시의 ‘군공항 이전 자문위원회’가 출범한 지 6년이 지났지만 ‘반쪽짜리’ 운영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이 장기간 답보상태에 놓여 있는 만큼 자문위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7일 본보가 입수한 ‘광주시 군공항 이전 자문위원회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해당 기구는 지난 2018년 출범 이후 현재까지 전남도 공무원·광역의원 및 이전지역 관련 공무원 등 전남 몫의 위원 선임이 한 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자문위 출범 당시 총 자문위원 중 전남 몫 위원을 30% 이상 위촉할 계획이었지만 6년이 지난 현재까지 공식으로 남겨두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자문위는 지난 2017년 광주시 조례를 근거로 이듬해 출범했다. ‘광주시 군공항 이전 조례’는 지역 최대 현안인 군공항 이

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법적·행정적 지원 기반 마련을 위해 만들어졌다. 입법 당시 조례에는 군공항 자문위 구성 등의 근거와 역할이 포함됐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자문위는 △군공항 이전 사업의 개발계획 수립 △주민 이주대책 △주민 설득 및 홍보 계획 등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기구로 역할이 명시됐다. 광주시는 역할에 따라 자문위원 25명 중 30%(7명) 이상을 전남도 관계 공무원 및 광역의회, 이전후보지 관계 공무원으로 선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도입 취지와는 달리 현재까지 전남도 위원은 물론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는 무안군과 함평군 위원은 단 한 번도 위촉되지 않았다. 자문위는 군공항 이전 사업 개발뿐만 아니라 주민 이주대책 및 주민 설득·홍보방안 등도 논의하지만 전남도민의 의견이 반영될 창구는 없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회의 실적도 저조하다.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총 13차례 회의(2018년 1회, 2019년 5회, 2020년 3회, 2021년 2회, 2022년 1회, 2023년 1회)를 하는 데 그쳤다.

올해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공포에 맞춰 자치 조례인 자문위도 조례를 개정해 역할과 범위를 확장했다.

지난 5월 박수기 광주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자문위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개선했다. 주요 내용은 △중전부지 활용과 개발계획 수립 △이전부지 주변지역의 이주대책과 지원사업 계획 수립 △주민 설득과 갈등 관리 △홍보 등 크게

4가지다. 자문위원 숫자도 25명에서 35명으로 늘렸지만 할당된 전남 몫의 위원은 여전히 공석이다. 자문위원 중에서도 자문위의 역할과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던 한 인사는 “실제로 군공항 자문위에서 하는 역할이 불분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회의에서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의제가 되지 못했다”며 “조례를 만들었을 때 광주시가 군공항 이전에 의지를 갖고 만든 것이겠지만, 실제로 자문위의 운영을 보면 집행부의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 군공항의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들을 위촉하지 못했다”며 “후보지를 전남도가 선정하게 되면 전남도 몫의 위원과 관계자들, 그리고 예비이전후보지 위원들을 선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주도하는 갈등관리협의회 외에 시·도가 상생을 기치로 군공항 이전에 대한 논의를 정례적으로 할 수 있는 소통 창구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온다.

기우식 참여자치21 사무처장은 “전남도가 자문위에서 틀러리가 되지 않으려면 위원단의 역할과 기능이 보완돼야 한다”며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동으로 추천한 인사들이 이전지역 선정을 위한 논의를 하고 숫자도 1대1로 참여하는 등 바람직한 방향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독립적 자문단을 위해 구성방식, 구성주체, 자문단의 권한 등 완전히 새로운 접근도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최황지 기자 hwangji.choi@jnilbo.com



광주영상복합문화관 미디어아트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7일 광주 동구 광주영상복합문화관 외벽에 대형 스크린을 설치, 미디어 아트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미디어 아트는 내년 초 광주 대표 음식인 주먹밥 등 다양한 광주시의 문화, 관광 등이 담긴 내용으로 상영될 예정이다. 김양배 기자



광주사람들 (578/1000)

임영희
요식업



▶ 관련기사 16편

‘군공항 논의’ 시·도지사 17일 양자 회동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오는 17일 만나 광주 군·민간 공항 이전 문제를 다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7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양측은

공항 이전 해법을 모색하고자 회동 일정을 조율해 왔다. 특히 지난달 28일 김지사가 군공항 이전 문제 협의를 위해 3시간(광주시·전남도·무안군) 대화에 무안군

나주 혁신도시내 공공기관서 김지사 제안에 강시장 화답

수가 응하지 않으면 시·도지사부터 먼저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조율은 가시화됐다. 김지사의 ‘양자 회동’ 제안에 강 시장이 ‘화답’했기 때문이다.

다만 연말인 12월인데다 양 단체장 모두 해외 출장 등이 있어 일정 조율이 쉽지 않아 최종적으로 일요일인 17일 오후 만나기로 결정됐다..

장소는 나주 혁신도시내 공공기관으로 결정됐다. 이는 지난 5월 회동 장소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였던 만큼 이번에는

전남지역으로 결정한 것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군공항 이전과 관련한 협의는 조속히 이뤄져야 하지만 두 지자체장의 일정이 워낙 빡빡해 조율하기가 어려워 결국 휴일에 만나는 것으로 조율이 됐다”고 밝혔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무안국제공항이 살아납니다! 서남권이 발전합니다!

국제공항이 살아나면 관광객 OK! 기업투자 OK!!

무안국제공항과 광주 민간·군 공항이 만나 진짜 명실공히 광주·전남의 관문공항으로!

- 무안국제공항은 모든 인프라를 갖췄습니다.
- 광주 국내선을 이전해야 국제선도 활성화됩니다.
- 군 공항까지 통합하면 서남권이 더 크게 발전합니다.
- 군 공항 소음 대책 확실히 마련합니다.
- 주민설명회에서 올바른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